

BIHORO MUSEUM

전 시 안 내

1F 제 1 전시실·제 2 전시실

2F 제 3 전시실·특별전시실



1F



2F



강과 더불어

비호로는 아바시리 강과 비호로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그 밖에도 크고 작은 많은 강이 흐르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은 태고적부터 강과 더불어 살아 왔습니다.

1 [굿샤로 호의 탄생]

굿샤로 호는 30만년 전부터 7천년 전까지 분화를 거듭한 화산에 의해 형성된 칼데라 호수입니다. 칼데라 호수는 일본 최대의 크기이며 분화는 비호로의 지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아이누의 생활]

아이누의 전통적 집인 "치세" 안을 볼까요. 토방에는 강에서 물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우라이"라고 불리는 어망이 보입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이로리"라는 화로가 설치되어 있고, 큰잎 부들 잎으로 짠 "키나"라고 불리는 명석이 깔려 있습니다. 방 안쪽에는 보물 놓는 곳이 있고 교역 등으로 구입한 다양한 철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 물살이 빠른 아바시리 강을 걸어서 건너다

5 [막부 말기의 비호로]

막부 말기인 1858년 탐험가 마쓰우라 다케시로가 에조지(현재의 홋카이도)를 탐험 조사차 비호로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살이 빠른 아바시리 강을 걸어서 건너거나 거주지역의 집주인에게서 직접 생활상을 듣거나, 강가에서 숙박하면서 여우와 언어를 잡아 먹는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 [태고적 사람들]

많은 강이 흐르는 비호로는 태고적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활 흔적인 유적은 만 수천년 전의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적의 수는 130개소에 이릅니다. 유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습니다.



4 [초여름의 자연]

홋카이도 동부에 위치한 비호로는 총면적의 60% 이상이 삼림이며, 아바시리 강과 그 최대 지류인 비호로 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자연의 고장입니다.

초여름 초목에 새싹이 돋고 다양한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동물들은 짝짓기와 새끼 키우기에 한창 바쁩니다. 나무 위에서는 짙은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옵니다. 또 여우는 새끼를 지켜보며 사냥을 하고, 밤의 숲에서는 올빼미가 새끼를 위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한편 겨울이 되면 불곰과 줄무늬다람쥐는 땅 속에서 동면하면서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6 [개척의 시작]

1887년에 비호로 외5개촌 호장(행정사무책임자) 사무소가 설치되자 개척을 위해 혼슈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착수오두막이라 불리는 간소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 울창한 원시림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밭에서는 말이 그루터기를 피하며 땅을 갈았습니다.



농업과 친숙한 자연

비호로에는 1970년에 만들어진 훗카이도 최대 면적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에는 현재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1 [비호로 온수 저수지의 구조]

비호로강에서 취수된 찬 물은 단차가 있는 온수 저수지의 상부에서 하부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태양열로 데워져 용수로를 타고 하류역의 논 등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2 [트랙터의 역사]

비호로에 처음 트랙터가 들어온 것은 1952년입니다. 훗카이도 경토개발기계 도입사업에 의한 것으로 말을 대체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당시 말이 하루에 갈 수 있는 면적은 0.5헥타르 정도였는데 트랙터로는 하루 2-3헥타르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애반딧불 (*Luciola lateralis*)



▲ 날개떠움잠자리 (*Sympetrum pedemontanum elatum*)



▲ 동버들개 (*Rhynchocypris perenurus*)



▲ 청개구리 (*Hyla japonica*)



▲ 피그미 물풀 (*Tillaea aquatica*)

3 [온수 저수지의 생물들]

온수 저수지에는 건설 후 40년 이상 세월이 지난 지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훗카이도 각지에서 절멸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도 있으며, 저수지는 그런 생물들에게도 소중한 서식처가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발걸음을 내딛으면 많은 잠자리가 날아갑니다. 그 종류도 수도 비호로 굴지의 규모인 이 곳 저수지는 잠자리들의 천국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로 40종류 이상의 잠자리가 확인되었고, 그 중 많은 종류는 저수지와 그 주변에서 산란하고 성장합니다.

또 저수지에는 습지를 좋아하는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버들개는 그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버들개는 강 옆의 늪과 같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근년 개발의 영향으로 그런 서식지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저수지는 동버들개에게 원래 서식지를 대신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개구리 등의 양서류도 산란장으로 저수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피그미 물풀 같은 식물도 사라져가는 습지환경의 대체지로서 저수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온수 저수지는 사람이 일구어낸 자연 그 속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마을숲과 같은 자연환경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4 [고개의 식물과 관계깊은 식물]

비호로 고개는 안개나 구름이 낀 날이 많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는 혹독한 환경입니다. 그 때문에 표고 500미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손바닥나비난초 등 훗카이도의 고산지대와 아고산지대에서 보이는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평지에는 없는 식물을 손쉽게 관찰할 수 있는 비호로의 귀중한 장소의 하나입니다.

한편 비호로 시가지에는 강가나 공원에 자연림이 남아있어 4월에서 11

월까지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초와 왜현호색은 봄을 알리는 봄맞이꽃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풀들은 눈녹은 직후에 꽃이 피어 초여름에는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봄의 요정이라고 불립니다. 훗카이도의 숲을 대표하는 식물입니다.



손바닥나비난초 (*Dactylorhiza aristata*)

체 험 해 보 세 요

아! 나비가 있어요. 귀엽네요.



예술을 만나다

오호츠크 지방의 미술은 이 지역의 풍토와의 깊은 관련 속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호수와 숲, 바다, 유빙과 같은 특유의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을 제재로 작품을 제작한 작가들은 그 시대에 맞춰 개성적인 표현방법을 자기것으로 소화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비호로에 연고가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2천점에 이르는 미술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회화와 조각, 판화, 족자 등과 같은 다양한 작품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1 오사메 나오지
"꽃"
제작년도 불명
수채화·종이



2 기시모토 히로미
"바닷가의 메뚜기"
2001년
유채화·캔버스



3 요코모리 마사야키 "말과 사람(한 사람)"
1964년, 유채화·캔버스

[주요 전시작품의 작가 소개]

1 [오사메 나오지 1910년-1996년]

비호로, 아바시리, 기타미의 초중학교 교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호로를 비롯한 홋카이도 동부지방과 이시카리 지방의 풍경을 제재로 불투명한 수채화를 구사한 표현을 추구하였습니다.

2 [기시모토 히로미 1937년-2011년]

어린 시절부터 16세까지 비호로에 거주하였습니다. 평생 전차 승객이나 이발소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의 일상을 많이 그렸는데, 만년에는 벌레와 식물 등을 제재로 선택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들 작품은 비호로에서 곤충과 식물을 직접 접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그린 것들입니다.

3 [요코모리 마사야키 1927년-]

오호츠크 지방의 미술을 선도했던 이구시 가이치에게 사사하여 회화제작을 배웠습니다. 비호로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생활 속에서 많은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마을 학교에서도 전시되어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별 전시 실

특별전과 "기증자료 컬렉션전" "교통안전 포스터 작품전" "동계작품전" "테마전" 과 같은 기획전, 그때그때의 토픽을 테마로 한 로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연, 역사, 미술 등의 다양한 주제로 학예원이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가지고 전시 패널과 자료, 모형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쉬운 비호로 정보로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언제 와도 여러 다양한 주제로 즐길 수 있습니다.

